

2020년 6월 '명사의 서재'

필립 로스

(필립 밀튼로스)

그는 미국의 유대계 작가로 현대 영미 문학의 전설이며 작가들의 작가로 평가받는다. 문체의 특징이나 내용이 간결하지만 주목할 점은 기름기를 빼고 군더더기를 제거한 후에 장문으로 다듬는 솜씨인데 직관적인 단문과 적절히 섞어 만든 내용이 플롯 안에 살아 움직여 사고의 전개가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빠르다. 문장의 울림도 강한 편이다.

소개

- 1933. 3. 19. 미국 뉴저지 출생 (폴란드계 유대인)
- 펜실베이니아 버크넬 영문학 학사
- 시카고대학교대학원 문학 석사
-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교수
-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교수
-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문학교수
- 2018. 5. 22. 타계(우혈성 심부전)

작품

- 1959 굿바이 콜롬버스
- 1960 (전미도서상 수상)
- 1969 포트노이의 북평
- 1997 미국의 목가 (풀리처상 수상)
- 1998 나는 공산주의자와 결혼했다 (백악관 문화예술훈장 수상)
- 2000 휴먼 스테인
- 2001 죽어가는 짐승
- 2006 에브리맨(펜/나보코프상)
- 2007 유명 퇴장
- 2008 음분
- 2009 전략
- 2010 네메시스

작가의 한 마디

“비밀을 하나 간직하는게 인간적이듯이, 그것을 언젠가 밝히는 것도 인간적이다.”

“인생이란 들뜸과 신음, 좌절과 자유, 영감과 불확실성, 풍부함과 텅 빈, 거침없는 질주와 겨우겨우 나아가는 전진”

